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스마트 상근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대학으로 가는 길 강의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의 시간에는요. 굉장히 변화무쌍한 입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특히 요즘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대학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세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교과세특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세특은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수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재
파트입니다. 수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요.

여기 교과세특에 기재가 되겠죠. 자, 대학에서 보는
일단 교과세특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몇 가지 대학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라고 할 수 있겠죠.

서울대학입니다. 자, 서울대학에서는요. 이 교과세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과세특 말 그대로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학생과 수업을 같이

수업을 하시는 해당 교과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평가를 글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
특히 요즘은 **2015** 개정교육과정 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자체가 강의 수업보다는 토론, 발표, 실험 다양한
수업이 많이 있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보이는 학생의 노력, 소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서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과성적 수치로만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교과세특을
통해서 서울대는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쭉 보시면 나오시고요. 맨 마지막에 수치화된 성적,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내신성적이죠. 이 내신성적으로는

드러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론 능력이라든가 발표 능력, 혹은 실험 관련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성적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21**세기 인재형 있죠? 말도 잘하고

주제 탐구도 잘하고, 리서치도 잘하는 이런 친구들을
인재로 뽑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요. 단순하게

시험성적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교과세특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비단 서울대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고려대에서 나온 학종 가이드에 나온 거를 발췌해봤는데요. 단순한 성취나

결과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교과세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지켜본 선생님이 바로 작성, 그 학생에 대해서 작성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여서 얘기하면

교과세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평가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 것도 한번

볼까요? 수업 시간에 대한 기록이며 평가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 참여 과정에서 성실성, 적극성, 그리고 제한적인 교육환경을 극복한 전공 관련

학습 환경.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실성은 말 그대로 아시겠죠. 얼마만큼 수업에 참여했느냐.

적극성은 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제한적인 교육환경을 극복한 이게 뭘니까?

학교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형태 즉,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

과정,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수업 방식이라든가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기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서 즉, 제한적인 교육환경을 극복한 전공 관련 학습 경험. 이게 바로 뭘니까? 선생님의

수업이라든가 학교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그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준으로 학생의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은요.

강의식만 진행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대학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간 비교도 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주어진 학교 환경 내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주어진 어떤 환경 자체가

안 좋더라면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요.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은요. 각 대학에 학교 프로파일을 보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떤

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주된 동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파일을 모든 대학에 보냅니다. 이런 아주 정형화된 자료를 가지고요.

학교의 어떤 형태를 파악을 해요. 아,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구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학교는 수상도 많고 즉, 교내대회도 많고 동아리도 굉장히 많이 창설했구나.

혹은 이 학교는 교내대회도 적고 동아리 수도 적은 거 같아.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더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성과 역시 좋아야겠죠. 반면에 학교 자체가 프로그램을 굉장히 적게 만든다거나 교내대회가 적어요.

어떤 동아리 형태도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대학들은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 수업 시간 내 토론, 모둠활동, 주도적 발표 다 뭐죠?

학업역량 그리고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요. 교과세특에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대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은 보통 이렇게 가이드를 많이 만들어줘요. 학종 가이드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시면 거의 다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발하는 대학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학종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교과세특을 채울지

궁금한 친구들은요. 이런 가이드를요. 좀 홈페이지 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 블로그 들어오시면요.

제가 다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꼭 찾아가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니까? 교과세특이에요. 모든 대학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이 교과세특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성적은 솔직히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시험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학원을 다녀서 성적을 올렸는지, 혼자 독학을 해서 성적을 올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과세특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한

학생이구나.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 활동을 했구나. 이런 학생은 평상시에 이런 종류의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시험 성적이 말해주지 않는 학생의

굉장히 다채로운 역량들을요. 이 교과세특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를 통해서 대학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숨 쉬면서 수업을 하시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한 분만 계신 건 아니죠. 모든 교과 선생님들의 교과세특을 보고 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간혹 그 여러 선생님 중에 이상한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록을 잘 안 해주신다거나 수업을 굉장히

옛날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과의 관계를 그대로 담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한 명과의 어떤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어서 교과세특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단편적인 면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교과세특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대학들은 이 학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보죠. 하루에 기본 7교시라고 한다면 7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파악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진학할 학과와 가장 관련이 있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공계라면

수학과 과학 파트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숫자가 아닌 글로 평가하는 교과세특 굉장히 큰

영향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과정과 결과가 모두 기재돼 있어요. 학교성적 즉, 내신은요. 결과만 숫자로

표현됩니다. 이 아이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떠한 책을 읽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성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교과세특에는 이 학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환경 자체를

굉장히 교사가 관심 있게 보고 이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기재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 학생이 어떻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고,

이후에 이 학생이 이 활동의 결과를 어떻게 활동했는지 충분히 선생님이 적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교과세특이라고 하는 게 비록 글로 하는 평가기는 하지만 숫자가 나타내는 역량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죠, 말로 표현하니까. 그리고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정성적인면 역시 교과세특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 대학들은요. 학생부 영역 내에서 교과세특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교과세특이라고 하는 게 숫자로 나타내는 내신만큼의 위력을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은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 학종 초창기에는요. 수업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시다. 초창기에는 여전히 입시 자체가 수능 중심이었습시다.

수능 중심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수업은 거의 다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강의식이 된다면 학생부가

당연히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성적 좋은 학생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어서

써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시다. 그런데 학종이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내공을 지닌 입시전형입니다.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은 고등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를 하신 상태예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지금 배우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전제로 깔고 교육과정이 짜져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수업은요.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시끌벅적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돼요. 선생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조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습시다. 단순하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혹은 이 아이들이 사전에 조사해온 리서치 자료를 가지고 조별끼리 모여서 어떠한 내용이 맞고

어떠한 내용이 새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각 단위별로

토론 주제, 혹은 보고서 주제, 탐구 주제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탐구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에게도 탐구활동의 단초를 제공해주는 게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요. 단순히 강의를 강의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전까지 강의식으로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도 교과서 자체에

탐구활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식 조별 수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식을 외우거나 활용하는 활동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시간 토론도 하고 탐구도 하여 여기에 수행평가의 비중은 커지죠. 그리고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교과세특에 여러분들을 적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가 따로 부여가 될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과부하 걸려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전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교과세특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로 나타내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학생부에서 표현해 낼 수 있는

일종의 세팅 즉, 판이라고 하는 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탐구활동이라든가, 발표라든가, 토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뭘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요.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실 겁니다. 이런 기록들을 나중에 모아서

학년 말에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겠죠. 교사의 학생 관찰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관찰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계속 이러고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 아이가 자는지 정도만 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이런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큼 따라오고 어떤

확장 능력이 있는지는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 저 아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전에 수업만 했을 경우에는 몰랐는데 애가 이런 면도 있네. 아, 애가 비록 가는 진로 자체가 이 교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저 아이의 어떤 갖고 있는 역량, 뭐 미술 같은 거, 그림 같은 거를 아이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발현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과 선생님은 알 수가 있어. 예전에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담임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과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도 솔직히 수업 시간이 아니고서는 조회와 종례 때만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많이 만나보는 다른 반 애들보다 자기 반에 대한 정보가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업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부의 질이요. 점점 높아져요. 굉장히 초창기에는 학생부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학생들 간에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교사 그리고 학교 간 격차도 굉장히 커졌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었던 교사 간의 차이는 이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요. 판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과서 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이지 않으시더라도 수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의 기록은 많아지게 됩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학생부만 봤을 때는

굉장히 학생에 대해서 역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올해 2019학년도에 학생부 기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세특 같은 경우에는 교과당 500자라고 하는 개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축소가 없었던 영역 중의 하나인데 교과가 굉장히 많아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에다가 기술가정과 같은 이런 것들. 보통 7개에서

8개의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500자를 다 채우면 $8 \times 4 = 40, 4,000$ 자 정도가 학생부의 교과란에

적힐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기겠죠. 자, 이와는 다르게 수상이라고 하는 것과 자율동아리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이전에

지금 고3이죠. 고3이라든가 고2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
그리고 자율동아리의 파워는요. 지금 1학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요, 지금은요. 그런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하나만 들어가죠. 자율동아리는 하나만

들어가는데 설명 자체가 30자 이내의 동아리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에 대해서 역량을 수상이라고 하는 것과
자율동아리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창체 글자수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자율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줍니다.

진로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어요. 봉사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죠. 그리고 동아리는 500자이기는

하지만 자율동아리가 30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축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여기에 플러스 해서 R&E 활동이라든가
소논문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

같은 게 굉장히 기재가 금지되든가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할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짜증이 많이 난 상태인데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렇게

시스템은 갖춰진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예전에는 그래도 학생들 간의 격차가

보였는데 이제는 수업의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학생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물론 이 학생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만큼이었다면
제일 좋은 애들과 제일 못 하는 아이들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좁혀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이에 있었던 친구들은 엄청나게 우열을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위를 드러낼 수
있는 숫자 즉, 내신성적의 비중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영역의 변별도가 떨어지니까
변별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내신의 파워는

지금의 학종 내에서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향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기에 글자수가 줄지 않은 교과세특, 그렇죠? 최대
4,000자. 교과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글자수를 가지게 되는 교과세특의 비중은 역시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업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여기에 학생부 기재 내용이 대폭 축소되고 이로 인해

반대급부로 교과세특은 어떻게 됩니까? 비중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강화되는 이 교과세특에 대해서 정말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1학년 때부터 이런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의 활동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하는 활동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관계를 갖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이 학생부가 정말로 스토리를 갖춘 좋은 학생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적으로만 가득찬

그저 그런 학생부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교과세특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대학이 나눠준 자료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던 자료죠. 학종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 혹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았던

자료일 겁니다. 그렇죠? 6개 대학이 공동으로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평가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겠다는 부분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교과세특과 관련된

부분, 바로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즉,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드러나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리더십, 경험의 다양성, 자기주도성,

탐구활동 그리고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굉장히 거의 모든 부분이 어디에 기재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교과세특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관들은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교과세특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장을 하게 됐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교과세특입니다. 그런데 트렌드가 있어요. 교과세특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의 트렌드는 뭘까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교과세특에서 나오는데 요즘 대학들이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죠? 탐구활동이에요. 탐구활동이 어떻게 교과세특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를요.

대학들은 지금 눈을 크게 뜨면서 현미경을 들이대보며 찾아보고 있습니다. 탐구활동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탐구활동, 교과세특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활동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탐구활동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

호기심 뭡니까? 지적 호기심이죠.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깊고 폭넓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T자형 인재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 그게 바로 뭡니까? 탐구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탐구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 번째,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교과죠. 바꿔 얘기하면 수업입니다. 두 번째,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자신들이 만들고 발표한 내용이 담기는

교과세특에서 확인 가능하죠.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인 탐구 의지와 호기심이 있는가?

뭡니까? 수업 시간에 얼마만큼 탐구활동을 하고 자기가 리서치한 자료를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얼마만큼

발표를 잘 해내고 이와 관련된 보고서 활동을 했느냐를 역시 마찬가지로 교과세특에서 확인해볼 수가 있겠죠.

즉, 학업역량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탐구활동에 대해서 대학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탐구활동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겠죠. 탐구활동은요. 말 그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통사, 통과.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매 단원의 마지막 파트에 탐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탐구활동을 해야 될지라고 궁금증이 많았던 친구들, 특히 중위권의 밑에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활동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시면 충분히 좋은 탐구활동이요. 교과세특에 적힐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하고 싶은 의지는 많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탐구활동에 많이 적히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과서에 아예 있다니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탐구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대학들은요. 탐구활동의 어떤 시발점 즉, 출발점이

뭔지에 대해서는요. 다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게 뭐 교과서에서 시작을 했든, 독서에서 시작을 했든,

아니면 TV든 영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껴요. 지적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탐구, 독서, 리서치, 연구활동, 협업활동,

토론활동 이러한 것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문으로 잘 적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좀 더 발전시킬지 고민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요. 하나의 그럴듯한 보고서라든가

발표활동으로 되시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세특에 모두 다 기재가 될 수 있겠죠.

자, 탐구활동은 말 그대로 역량평가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겁니다. 탐구역량만 들어간 건 아니겠죠. 전공적합성

들어갑니다. 리더십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인성까지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탐구활동을 하나 하면 정말로

일석이조가 아니라 3조, 4조, 5조까지 확대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탐구활동을

소논문이라든가 R&E 활동을 해야지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교과는 단순히 지식만 나오고 이거 일단 어떻게 파고들어 갈지는요. 좀 친구들끼리 모이든가 좀 힘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소논문을 만들든가 아니면 R&E 활동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것들을 탐구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논문과 R&E 활동은요.

학생부에 기재가 안 되죠. 해도 기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보고서 형태라든가 아니면

주제 발표, 주제 연계 발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학생부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한국을 알리는 21세기 이순신'이라는 주제로

반크의 활동을 소개하고, 동해표기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경험을 발표하였다. 좋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제발표 활동에서 '인공지능과 심리학의 관계'라는 주제로 인간의 고유 영역인

감성분야까지 진출하는 AI의 현황과 그 예시를 영어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활동에서 'the giver'의

작가와 내용을 요약하였고, 차이를 인정치 않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 고민을 다루고 이것을 발표하였다.

독서활동이죠. 그렇죠? 일종의 보고서 활동입니다. 이거는 봤더니 반크라고 하는, 보통 반크가 모든

고등학교에 동아리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동아리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일종의 탐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탐구활동은 수업시간에

해줘야 됩니다. 보통 보고서도요. 보고서만 제출하면 안 돼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보고서 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나서 연계된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순하게 보고서 작성을 했음보다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도 하였고요.

이와 관련된 최종 결과물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렇게 적혀야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게 판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목, 특히 자기의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교과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서 발표하면

훨씬 더 돋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무 때나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하고 있는 단원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주제라면 어떤 선생님이 발표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단원의 마무리를

이 아이가 관련된 주제를 발표를 통해서 하니까, 특히 단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쉽겠죠. 특히 단원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한 단원입니다.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과이기는 한데 교육, 환경, 과학, 경제, 문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국어도 당연히

그렇죠.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융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섞여진 상태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진로가 어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파트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왜?

예전에는 다 같이 안 했어요. 특정한 아이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해요. 예전에는 하는 게

차별화의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안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차별화,

개별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그 각 활동 간의 연계점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많아요. 그렇죠? 모든 교과에서 요즘 거의 다 발표활동을 합니다. 힘들어요.

하나 발표활동 준비하기도 힘든데 2개, 3개, 4개. 한 번만 합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으니까 2번, 3번 하겠죠.

여기에 수행평가까지 들어가면 정말로 바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합니까? 시험인데 공부를 해야겠죠.

굉장히 바쁜데 이거를 혼자서 옛날처럼 막 독고다리로 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독불장군처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몸이 못 버팁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친구들과 같이 해야죠. 비슷한 어떤 진로를 갖고 있거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학생을 여러분이 모으세요. 아니면 선생님이 조를 짜주시겠죠. 그런 아이들과 조를 이뤄서

혼자서 다 하기보다는 서로 각자의 파트를 나눠서 각자 하고 그리고 자료들을 모아서 공통된 자료를 만들면

굉장히 자기는 한 부분을 했지만 여섯 조각이 모여서 큰 조각을 만들듯이 어떤 활동이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배분도요. 굉장히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건 뭡니까? 설 수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뭘예요? 탐구활동은요. 차별화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심하게 가면 안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탐구활동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왜?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교과세특에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함, 이런 내용을 실험하고 발표함이

거의 다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특히 좋은 학생부를 가지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더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간 활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뭡니까? 진로라고 하는 공통점을

매개로 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당연히 학년별로도 점점 수준이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요. 양적으로 풍부해진 학생부가 질적으로 좋은 학생부로 변화하기가

힘들어져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탐구활동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업시간과 교과목과 단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평상시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이렇게 적힙니다.

일주일 동안 자연환경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걸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천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한 번 이루어진 오존층 파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물론 여기만 봐서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제시해줄 수도 있지만 학생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좋은 활동이면 자기소개서에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협약과 공익광고를 조사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아이기 때문에 같은 교과 내에서도 어떻습니까? 연계가 되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와

UN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발표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확장되고 성장하는 탐구의

모습을요. 같은 교과 내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과의 내용이 특정한 교과뿐만 아니라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리고 교과선택뿐만 아니라 창의적 활동에까지 이게 확산돼 있으면 정말로 멋지고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멋진 학생부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계획도 짜셔야 되고요.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자, 다양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윤리, 지리,

이런 식으로 묶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묶여요. 1과 같은 경우는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해서

삶의 목적, 행복실현, 통합적 관점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주제가. 여기 볼까요? 생활 공간과 사회예요.

산업화와 도시화, 교통, 지역변화. 도시과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회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종 어떤 과학기술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융합적인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내에서 탐구활동의 소재를 뽑아내기가 쉬워요.

과학탐구실험입니다. 과학탐구실험 같은 경우에 실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혹은 인문계열이지만 과학적인 역량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렇게 수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단위 내에서 자기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더 자기의 어떤 진로라든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층탐구활동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고요. 발표활동 해주시면 돼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원을 언제쯤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 계획을 교과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교과서 내에서도 좋은 탐구활동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특히 독서 정말로 중요하죠. 독서활동도 뭐예요?

탐구활동입니다. 실험만 하고 모두 보고서 쓰는

게 탐구활동인 건 아니에요. 독서 읽고 독서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고, 토론해보고, 발표하는 것
역시도 탐구활동입니다. 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굉장히 쉬운 책이죠. 그런데 이거를요. 책 주제의 하나인
'family'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했어요? 발표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진로, 교육 쪽인가 봐요. 이런
쪽에 대한 역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순한 독서활동,

독서 항목의 책의 저자와 책의 어떤 제목만 적히는 이런
독서활동은 거기가 아니라 교과세특에 이렇게 적게 되면

굉장히 더 좋은 평가를 받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책은요. 독서 항목에 쓸지, 어떤 책을 교과세특에

쓸지, 그리고 어떤 책을 자기의 주전공에 쓸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시일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역량 자체가 리서치 역량에 따라서

자기의 취업이 결정이 되고 학점이 결정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시스템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리서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서치 능력을
키우셔야지 나중에 탐구활동이라든가 각종 보고서

활동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되고요. 역량이요. 학생부에
제대로 적힐 수가 있게 돼요. 평상시부터, 그냥 연예인

검색하지 마시고요. 물론 해도 됩니다. 대신에 좀
더 생산적인 어떤 검색을요.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검색 능력 나오지 못합니다. 자, 수행평가 얘기해볼까요?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의 수행평가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많았어요.

하루 날 딱 정해서 이날 시험 볼 거야. 그렇죠? 단어
외워봐. 이날 단어 본 거는 수행평가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개정교육과정 자체는요.
뭘 얘기하느냐? 과정 평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의 이런 산출물 과정,
이런 활동을 하는 매매 한 순간, 한 순간을 평가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야말로 여러분들이 교과세특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수행평가의 비중 서울 기준으로 보통
50% 이상 출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회죠.

강의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선생님들도 수행평가 50%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전까지 수업내용의

변화가 없던 분들도요. 이런 내용 때문에 수업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게 수행평가 아닙니까?

성적에 들어가죠. 보다 선생님은 그 학생의 수행평가의 내용들요. 면밀히 자세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예요.

이게 기회죠. 자기가 그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수행평가라고 하는 장을 통해서 선생님께 100%, 200%

심지어 300%까지 어필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수행평가는 그냥 단순히 점수를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 활용하셔야 돼요. 좋은 학생부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의 활동을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으로 인해서 어떠한 활동들이 파생되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로 좋은 학생부냐, 그저 그런 학생부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로 하는 것도 많아요.

단체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협업의 장이 되고요. 교과서 중심입니다. 그렇죠?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확장을 수행평가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수업과 영화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를 했어요. 학생부에 쓰기를요. 그런데 이 학생은 영화에 나온 내용들을 굉장히

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많이 하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겠죠. 당연히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좀 더 지켜보고 면밀하게 관찰하셨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니까? 사회적 책임감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수업 중에 이루어졌다면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행평가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관찰을 하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을 통한 문화 전파의 사례를 찾아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뒤에 만약에 이와 관련된 후속 평가가 있다면, 후속 활동이 있다면 정말로 수행평가 하나로 시작된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변화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 스스로 그리고 계획적인

수업활동이라고 제가 부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왜냐하면 교과세특은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예전에는

판을 깔아줘야 됐거든요, 선생님들이요. 그런데 요즘 자체는 교과서, 수업 자체가 이미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판이 짜져 있고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서 굉장히 잘 뛰어야겠죠.

공을 잘 차야 됩니다. 공을 잘 던져야 돼요. 감독이 던져줍니까? 아니죠. 누가 해야 돼요? 거기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직접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선생님 탓하고 선생님 핑계대고, 언제까지

학교 핑계 댈 겁니까? 핑계 대봤자 여러분들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입시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환경을 탓할 것이고,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탓할 겁니까? 선생님들은요. 활동을 하고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산출물이 있으면 기재해주십니다.

아무리 선생님 성향이 안 좋다 하더라도 활동을 한 거는요. 요즘 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움직여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협업 활동해야 되고, 좀 더 심도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독서활동 해야 돼요. 말을 자꾸 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문제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활동, 탐구활동의 내용도 질문하러 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단원명 보면 되잖아요. 설명 보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에 딱 찍으세요. 찍고 단원에 있는 탐구활동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예습해보시고 리서치 작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활동도 하고,

보고서 작성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업시간은요. 여러분들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어필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대비 요약정리를 하고 아니면 한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프린트 나눠주세요, 친구들한테. 교실 게시판에 붙여놓으세요.

다 교과세특에 적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담당 선생님이 아셔야겠죠. 그런데 게시판 붙어 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 보시면 이거 누가 만들었니? 아, 그래서 상근이가 만들었어? 상근이에 대해서

좋게 써주시겠죠. 이 학생은 매 시간마다 수업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나누어줌.

프린트를 나누어주는 배려의 정신이 뛰어난 학생임.

이런 거 써주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만 갖고 있는 거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이래야지 좀 더 좋은 활동이 나오고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학생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교과교사와의 소통입니다. 아무리 활동을 잘하고 보고서 써봤자 수업하는 선생님이 모르신다면 말짱 꽝이죠.

왜? 활동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 활동을 학생부에 적어주시는 분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몫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몰라요. 말짱 꽝이죠.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안 써주셨을 거 같아서 보고서 들이밀었더니 아니 이거 뭐냐? 나는 니가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전부터 가서 그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이런 거 할 건데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중간중간 할 때마다 중간 보고서 만들고 제출하고, 마지막에 발표하고, 발표한 다음에

이에 대한 최종 산출물인 보고서 작성해서 내주시면 그 어떤 선생님이 학생부 교과세트에 여러분의

그 좋은 활동을 적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모든 활동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계획서 작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탐구활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가서 좀 질문도 해보고

조언을 구하는 거, 자문을 구하는 거 이런 것도 해주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시간에 상근아, 이런 거

잘 되고 있니? 라고 한마디 더 해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관찰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뭘니까? 일종의 어필이고,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친구 교과로 가든가 수능으로 가야죠. 학종으로는

못 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말로 하셔야 되고요. 눈에 보이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학생부가 좋아져요.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안 적어주셨어. 옛날에는 변명 통했어요.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탓이에요.

결국에는 누가한테 돌아옵니까, 활동을 안 하면요? 다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고서만 제출하면

굉장히 최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최악입니다.
나중에 의까지 상해요. 학생은 냈는데 선생님은

적어주지 않는다고 해, 적어줬는데 굉장히 짧게
적어주십니다. 마음 아프죠. 학생이 하는 일 교사가

알아야 됩니다.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하는 일 선생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말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활동의 출발은 계획서 제출이고요.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치되는
교과세특. 뭐와 일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교과성적과 일치해야 됩니다. 성적은
굉장히 높는데 기재는 되어 있어요, 교과세특에.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평이하다. 이 학생은 양만 많지
학종이 원하는 인재는 아니에요. 특히 상위권 학생일수록

활동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차별화돼야겠죠.
처음에 시작한 기초적인 보고 활동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오는 산출물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적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조금 심도 있는 활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그렇죠?

미사여구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학생부를 써주긴 써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한 활동을 모를 때 글자수는 늘려야 되니까 쓰는 게
형용사와 부사 미사여구입니다. 미사여구가 들어가면

당연히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막상
썰리고 보면 껍데기만 정말 두꺼운 거지 속에 있는

알맹이는 없어요. 씨만 이만큼 많습니다. 먹을 게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당연히 단순참여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무임승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조별
활동하는데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딱

도와준 거 하고 이름 적어냈어요. 예전에는 애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기는 했지만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 평가하죠. 나는 정말 전체
100 중에 내가 50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 30 했어. 그런데 재는 5밖에 안 했어. 짜증이 나죠.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빼버리죠. 물론 고등학교에는 그 정도까지는 않지만 어때요? 선생님이 보고 계시죠.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요즘 동료평가서 받아요. 동료 평가 받으면 애들이 요즘 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만 만들었어요.

제가 PPT 만들고요. 번역 활동 다 했어요. 다른 애들은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저 이만큼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주도적으로 만든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생님은 당연히 주도적으로 한 아이한테

좋은 평가를 써주시고요. 나머지들은 단순히 팩트만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무임승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소극적인 참여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성적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그게 바로 뭐니까? 좋은 교과세특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뒷감당이 안 되는 활동을 한다? 힘들죠. 왜냐하면 학생부에 있는 모든 활동은

면접시에 물어봅니다. 특히 정말로 뭔가 있어 보이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활동에 대한 교과적인 어떤 배경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말짱 꽝이죠.

탐구활동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니까? 이런 배경이 되는 교과지식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탐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교과세특에는 탐구활동이 많은데

이것과 관련된 이론을 물어본다든가 교과지식을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따라서 뒷감당이 되는 활동을 먼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자기 학년

수준에서 자기 나이 또래 때 자기의 역량 수준에서 소명 가능한 활동을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재가 정말 멋진 거

하는 거 같아.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그런데 교과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발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있는지 잘 물어보시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피드백까지는

주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탈탈 털리게 되는 형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점차 성장하는 거니까.

2학년과 3학년 때 뒷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활동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는 있겠죠. 왜? 교과세특은

면접에서 무조건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학생부의 한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과세특은 면접의

주 메뉴.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다양한 활동,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리고 객관적인

학업 역량인 교과세특.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고 이것을 면접이라고 하는 검증을 통과하면

당연히 이 학생은요. 정말로 놀라운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관들은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비중이 좀 커질 필요가 있어요. 교과 성적이 살짝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번 보면 끝나는 거니까 메울 수가 없죠.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하고 폭넓고

깊은 활동을 통해서 지적 능력이 성장됨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과 성적은 낮을 수도 있지만

교내대회 같은 거에서 수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보고서 활동 같은 거 참여해서 자기가

교과 성적이 보여주지 않는 다른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다음 학기라든가

다음 학년도에는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와줘야겠죠.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정작 성적이 떨어진다고? 좀 그렇죠.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한 개의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전체에 퍼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활동까지

배려를 해가면서, 고려해가면서 활동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시간 나만의 학생부 만들기

교과세특편이었습니다. 학생부에서는요. 교과세특이 어떻게 보면 넘버원이에요.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교과성적, 그리고 교과세특. 자웅을 겨루기 힘들죠. 둘 중의 하나가 부족하면 굉장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교과세특,

특히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활동 하셔야 되고요. 다양하고
깊은 탐구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교과세특을

메워주는 그런 활동을요. 꼭 전략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토록 원했던 좋은
학생부, 스토리 있는 학생부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6강 나만의 학생부
만들기 교과세특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